

안전한 멘토링을 실천하는

10가지 방법



관계는 개인이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존중받고, 이해받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연결해 주는 멘토링은 세대 간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의도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멘토링을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입니다.

1. 프로그램 책임자 임명

프로그램 책임자는 모든 참여자가 건강한 멘토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며, 돌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를 위해 멘티와 그 부모에게 멘토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기대치를 전달하고, 각 멘토와 멘티가 지침과 요구 사항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2. 멘토링 지침에 대한 멘토 교육

잘 마련된 멘토링 지침은 멘토와 멘티 모두를 보호합니다. 이 지침은 대면 만남, 디지털 소통, 교통편 및 기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안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멘토와 멘티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을 고려할 때, 현명한 멘토는 관계의 정서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범적인 기준과 지침을 따릅니다. 지침을 따르는 것은 멘티를 향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3. 건강한 경계의식 교육

건강한 관계의 경계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멘토가 정서적, 영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서 정직, 친절,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는 항상 멘토와 멘티 모두의 안전을 위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4. 행동강령 서약 및 이행

행동강령은 관계의 시작 단계부터 멘토에게 요구되는 행동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멘토는 이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멘토는 자신이 멘티에 대해 권력과 신뢰의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권한을 멘티의 유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5. 멘토링 활동 기록

일대일 멘토링 만남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공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책임자는 모든 만남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책임자, 부모, 그리고 다른 멘토들이 멘토링 활동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소통 시 유의사항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소통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멘토와 멘티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디지털 소통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문자, 이메일, 채팅 등으로 주고받는 일대일 메시지도 대면 만남과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7. 이동 시 안전 수칙

멘토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단둘이 차량에 동승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멘티의 부모/보호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멘티와 함께하는 차량 이동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8. 이상하거나 잘못된 점이 보이면 말하기

항상 지혜롭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멘토링 관계에서 이상하거나 잘못된 점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결국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은 멘티와 멘토 모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9. 신뢰와 기밀 유지

멘토는 멘토링 관계에서 나눈 대화나 정보를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멘티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세상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멘토가 들은 내용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멘티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학대나 방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기밀 유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10. 학대 의심 시 신고

미성년자인 멘티가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거나, 멘토가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멘토는 반드시 아동 보호 서비스 등 관련 법 집행 기관이나, 미국과 캐나다 각 주의 해당 아동 복지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책임자, 안전한 교회 리더, 또는 Thrive의 안전한 교회 사역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멘토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Thrive 교회사역부에서 제작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역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thrive@crcna.org로 연락 주세요.

810837

